

# “농협 하나로마트 확장 안된다”

## 영암읍 상인들 “골목상권 고사” 반대 서명 나서

### 군의회에 공사중지 가처분 요청 계획도

최근 영암농협이 하나로마트를 확장하고 있는 가운데 영암군 영암읍내 중소 상인들이 ‘골목상권 고사’를 우려하며 대책마련을 호소하고 있다.

14일 영암농협에 따르면 총사업비 50억원을 들여 기존 660㎡(200평) 규모(단층)인 하나로마트를 총면적 3967㎡(1200평) 3층 규모로 증·개축할 계획이다. 영암농협은 조만간 일

할을 실시해 업체를 선정후 곧바로 공사에 들어가 10월에 완공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영암읍 상인들은 최근 상가번영회(회장 하덕성)를 결성하고 하나로마트 확장을 반대하는 서명을 받고 있다.

상가번영회는 현재 회원 500여명의 서명을 받은 상태이며, 마무리가

되면 군의회에 공사중지 가처분 요청을 할 계획이다.

상인 홍모씨는 “지금 상태로라면 재래시장과 골목상권이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마트만 이익을 보게 될 것”이라며 “신축 건물에 회타운과 대형 식육식당이 들어선다는 말까지 듣고 있어 긴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읍내 상인들의 반응에 대해 영암농협도 완강한 입장이다.

영암농협 관계자는 “이미 하나로마트 확장문제는 이사회를 통과했고,

군청에서 건축허가가 난 상태여서 법적으로 전혀 걸릴게 없다”면서 “지역 주민, 상가번영회와 협상을 하겠지만 협상이 결렬될 때는 사업계획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덕성 상가번영회장은 “요즘 읍내 상권을 생각하면 화가 치밀어 오른다”며 “농협이 풍부한 자금력으로 몰락공세를 벌이면 자금력이 부족한 영세상인은 말라 죽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중부취재본부=문병선기자 moon@



사랑의 동지들기 “바빠요” 왜가리 암수 한쌍이 친환경농업 지역인 강진군 움천면에서 동지를 틀고 있다. 왜가리는 우리나라의 백로와 조류중에서 제일 큰 종으로 한반도 전역에 걸쳐 번식한다. <강진군 제공>

### 지역 일자리 창출 우수 지자체 선정 장흥 8000만원 받아

장흥군은 지난 13일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열린 ‘지역일자리 정책 한마당’ 행사에서 2011년도 지역일자리 공시제 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돼 우수상 표창과 함께 지역맞춤형 일자리 사업비 8000만원의 재정 인센티브를 받았다.

군은 이번 평가에서 ▲지방정책포럼 개최를 통한 일자리 창출방안 모색 ▲Ato-Zero Town 녹색일자리 전문인력 양성교육 ▲무산(無産)·정남진(正南進) 장흥한우·표고버섯 등의 지역특산품의 주민주식회사 설립 ▲관광산업의 활성화에 따른 일자리 창출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명흠 군수는 “일자리가 필요한 군민 모두가 일할 수 있도록 일자리 창출 1806개를 목표로 설정하고 지역 고용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중부취재본부=김용기기자 kykim@

## 해조류·함초 활용 사료 개발 박차

### 전남도농기원

15일 0시부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되는 가운데 전남도가 FTA와 국제 곡물가 상승에 따른 배합사료 가격 상승에 대응해 농·수산물 부산물을 이용한 사료대체와 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전남도농업기술원 축산연구소는 해조류와 함초 등 생산후 버려지는 농·수산물 부산물을 활용해 대체 사료를 개발중이다.

축산연구소는 올해부터 2014년까지 단계별로 ▲섬유질 배합사료 한우 급여에 따른 생산성조사 ▲영양학적 가치 분석 ▲도축성적 분석 ▲생산비 절감률 등에 대한 현장실증 연구를 실시한다.

또 해조류 가공공장에서 제품개발 후 발생하는 부산물의 경우 단백질

함량이 높다는 것에 착안해 ▲2012년 닭 ▲2013년 돼지 ▲2014년 한우 등 종중별로 급여시험을 실시해 증체량과 면역활성, 고기품질 등을 조사하게 된다.

이 밖에도 함초 부산물을 활용한 육계(肉鷄)사료 첨가제를 개발과 함께 전량 배합사료에 의존하고 있는 돼지 생산비 절감을 위해 돼지 풀사료 이용기술을 개발할 계획이다.

전남도 농업기술원 하장소 축산연구소장은 “FTA 대응을 위해서는 축산농가에서 배합사료 위주의 사양관리에서 벗어나 친환경 축산물을 통한 환경개선과 생산비 절감, 가축 개량을 통한 고급육 개발 등이 우리 축산업을 살리는 경쟁력이다”고 말했다.

/송기동기자 song@kwangju.co.kr

## 연극 ‘아버지’ 강진서 첫 순회공연

### 한승원 소설 극화

장흥군이 전문 극단과 기획 제작한 연극작품이 무대에 올려졌다.

장흥군은 “연극 ‘아버지’ 작품이 14일 저녁 8시 강진군 아트홀 대극장에서 첫 공연됐다”고 밝혔다.

연극 ‘아버지’ 작품은 장흥의 문학을 대표하는 한승원 작가의 소설 ‘아버지를 위하여’를 극화한 것이다.

극중 장흥출신 노동자 ‘김오현’의 힘겨웠던 삶과 장성한 자식들의 효성에 힘입어 풍성한 고회잔치를 여는 날을 배경으로 11남매를 낳고 키우며 힘겹게 살아온 이야기가 전라도 사투리와 함께 구수하게 펼쳐졌다.

/중부취재본부=김용기기자 kykim@



군은 지난해 강흥문화예술회관 상주예술단체인 ‘극단 까치’와 연극작품을 공동 제작했고, 올해에는 전국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순회 유료공연을 추진하고 있다. 장흥군 문화예술회관 관계자는 “연극 ‘아버지’는 가족과 아버지에 대한 공감대 전달 콘텐츠가 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지역 문화예술 역량을 전국에 펼쳐 문화브랜드 위상을 제고할 뿐만 아니라 지방 문화회관의 발전과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저수지 등 농업기반시설 정비

### 농어촌공사 영암지사

본격적인 영농기를 앞두고 한국농어촌공사 영암지사(지사장 하상수)는 관내 저수지 139개소, 양·배수장 64개소 등 총 258개소의 시설물과 1

만3581ha의 수리담 중 취약분야 농업기반시설을 대상으로 일제 점검·정비를 시행하고 있다.

영암지사는 사업비 2억1700만원을 확보해 지난해 말부터 인력 준설 및 중장비 준설을 실시해 4월 말까지 점검·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다.

/중부취재본부=문병선기자 moon@

이를 통해 농한기 지역주민 2000여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부수적인 효과도 거둔다.

하상수 영암지사는 “올해도 영암 들녘에 풍년가가 울려 퍼지도록 전 직원이 한마음으로 고객에게 감동을 주고, 농어촌에 희망을 주는 일등공민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중부취재본부=문병선기자 moon@

## 전 북

## 완산체육공원 어두제에 수달 산다

### 관리공단, 4마리 발견

전주시 완산생활체육공원 어두제에서 멸종위기 야생동물 1급으로 지정·보호되고 있는 수달(천연기념물 제330호) 4마리가 발견돼 화제다.

전주시 시설관리공단은 최근 어두제에서 유영하는 수달을 촬영하는데 성공했다. <사진> 권대택 공원운영 팀장은 “지난 2월부터 현재까지 야간 순찰도중 수회에 걸쳐 수달을 목격했다”며 “부모로 보이는 큰개체 2마리와 새끼 2마리 등 이영객이 많은 낯 시간을 피해 활동이 왕성한 야간에 어두제에서 활동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공단은 수달의 습성상 일정한 강이 지나면 독립을 하게 되는데



작은 개체와 함께 발견된 것으로 미루어 보아 완산생활체육공원 인근에 수달 서식지가 따로 존재하며 최소 5마리에서 최대 10마리 이상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덕규 이사장은 “수달서식지가 관광객들로부터 간섭받거나 훼손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천연기념물 보호구역 지정 여부를 전주시와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강철수기자 knews@

## ‘관광+체험’ 어촌마을 인기

### 6곳 작년 관광객 25만6000명 방문... 82% 증가

관광과 체험을 동시에 할 수 있는 도내 어촌마을에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전북도는 “지난해 도내 6개 어촌마을을 찾은 관광객은 총 25만6000명으로 2010년 14만명 보다 82.4% 늘었다”고 14일 밝혔다.

관광객 증가로 이들 군산 장자도·선유도, 고창 하전·만돌·장호, 부안 모항 등 6개 마을은 23억원의 짝짱 수입을 올렸다.

이들 마을의 인기 비결은 자연환경과 생활문화가 어우러진 관광 기반시설을 조성하고 갯벌 관광버스 타기, 조개 잡기, 해상낚시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군산시와 고창군은 5700만원을 들여 ‘어촌마을 사무장’을 채용, 갯벌 스포츠 등 마을에 적합한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토록 하고 있다.

한국어촌어항협회도 최근 군산 선유도, 고창 하전·장호, 부안 격포 등 4곳을 ‘아름다운 어촌·체험 행사 대상마을’로 선정했다.

대상마을로 선정된 마을은 4월부터 1박2일에 걸쳐 도시민 80명을 대상으로 특성화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 관광객을 유치하게 되며, 체험 참여자에게는 여행경비의 40%(5만 5000원)를 지원하게 된다.

군산 선유도 마을에서는 갯벌체험과 개막이 체험, 통발체험, 자망어업

체험, 자전거 트레킹을 할 수 있으며, 고창 하전마을에서는 갯벌스포츠, 갯벌체험, 사동 소금전시관 자업체험 등을 할 수 있다.

또 고창 장호마을에서는 어로체험과 구시포 해수욕, 상하치즈공장을 견학할 수 있고, 부안 격포마을에서는 바지락 채취체험과 선상낚시 체험, 갯벌체험, 바다수영을 할 수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이들 마을은 잘 보존된 서해안 갯벌에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까지 더해져 ‘관광+체험’이 활성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전북취재본부=강철수기자 knews@

## 군산 공설시장 현대식 ‘새단장’

### 250억 들여 3층 건물

전북의 대표적 재래시장인 군산 공설시장이 재건축공사를 마치고 현대식으로 단장돼 새로 문을 연다.

군산시는 “군산 공설시장이 1년6개월여의 재공사를 거쳐 각종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전문 식당가와 먹거리, 공산품 매장 등을 두루 갖추고 16일 개장한다”고 밝혔다.

90년 전통의 공설시장은 공사기간 동안 인근 다른 장소로 옮겨 영업을 해왔다.

250억원을 들여 완전히 현대식 건물로 새롭게 태어난 공설시장은 1만 942㎡의 부지에 면적 2만763㎡, 3층 규모의 건물로 꾸며졌다.

1층에는 농수축산 등 1차 식품과

간편 먹거리를 배치했고, 2층에는 의류·침구·커피·한복 등 생활용품과 안경점·귀금속·핸드폰·미장원 등의 서비스 업종과 전문식당가를 배치했다.

특히 3층에는 국내 최초로 군산시 여성교육장을 입주시켜 쇼핑과 문화생활이 동시에 가능하도록 했다.

시는 고객의 편의를 위해 주차공간을 기존(158대)보다 크게 확대(488대)했다.

군산시 관계자는 “시공사의 부도로 한때 공사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를 극복하고 현대화 한 공설시장의 문을 열게 됐다”면서 “따라서 그동안 임시로 사용했던 시장은 당일부터 폐장한다”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박금석기자 nogusu@



## 금산사·청도리길 벚꽃터널 환상적

### 내달 13~15일 ‘모악산 벚꽃잔치’

‘제5회 모악산 벚꽃잔치’가 오는 4월 13일부터 15일까지 사흘간 모악산(금산사) 상가 주차장 일원에서 열린다.

이번 축제는 ‘2012 전북 방문의

해’를 맞아 2012까지 숨은 이야기를 찾아 떠나는 ‘열수 전북’ 여행상품을 통해 수도권 관광객을 유치하고, 다양한 문화공연 행사와 체험행사, 홍보·전시행사, 길 문화체

험 행사 등 다채롭게 진행된다.

또 매년 관광객들의 높은 호응을 얻고 있는 ‘청보리 한우’ 체험장과 농·특산물 전시 판매장 등을 확대 운영한다.

이와 함께 시는 금산사·금령저수지·청도리길 일원(사진)을 ‘환상의 드라이브 코스’로 조성하고, 모악산 주변에 산재한 ‘금구 명품길’, ‘모악산 마실길’, ‘아름다운 순례길’ 등 다양한 길문화 체험행사를 마련해 관광객의 이목을 집중시킬 계획이다. 이건설 김제시장은 “올해 벚꽃잔치 기간중 30만명 이상의 상춘객이 몰릴 것으로 예상돼 음식·숙박·교통·주차 등 환대서비스 개선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금산사 주변상가 활성화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홍윤선기자 hnews@

## 단신

### 전주시, 토·일요일 문화장터 운영

전주시는 3월부터 11월까지 한옥마을을 찾는 관광객에게 더욱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은행로에서 매주 토·일요일에 문화장터를 운영한다.

문화장터는 은행로 533m 구간에 마련되며 40여명의 지역 예술

인들이 만든 탈, 장승 솟대, 인형, 도자기 등을 전시·판매한다.

이와 함께 시는 시립예술단과 전주시에 100여개 예술단체, 동호인이 두루 참여하는 상설 공연과 가마체험, 벼슬놀이체험과 같은 문화체험 행사도 열 계획이다.

/전북취재본부=강철수기자 knews@

### 군산시, 상수도 유수율 높이기 박차

군산시가 오는 2020년 생활용수 유수율(有收率=수돗물 생산량중 요금 수입으로 돌아오는 비율) 83%를 목표로 설정하고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현재 군산시 유수율은 82.1%로 전국평균 79.7%를 웃돌고 있

지만 생활용수 부문 유수율은 69%로 다소 낮은 편이다.

이에 따라 시는 생활용수 유수율 제고를 위해 1980~2011년 총사업비 365억원을 들여 불량수도관 435km, 노후 계량기 4만 4746개를 교체했다.

/전북취재본부=박금석기자 nogusu@

### 남원시, 김주열 열사 52주기 추모제향

4·19혁명을 촉발시킨 김주열 열사의 제52주기 추모제향이 14일 남원시 금지면 웅정리 소재 김주열 열사 추모각에서 열렸다.

김주열 열사기념사업회 주관으로 열린 이날 박영철 기념사업회장의 초헌을 시작으로 정성현 이사장의 아헌, 마산용마교도 학생

대표의 종헌, 추모시 낭송 순으로 진행됐다. 김 열사는 1960년 3월 15일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시위에 참가했다가 행방불명된 뒤 4월11일 마산 중앙부두에서 오른쪽 눈 부위에 최루탄이 박힌 시신으로 떠올라 4·19혁명을 촉발시켰다.

/전북취재본부=백성기기자 bs8787@

### 김제시, 여성발전기금 지원 5개사업 확정

김제시는 올해 여성발전기금 지원사업으로 5개 사업에 1500만원을 지원한다.

시는 14일 여성발전위원회를 열고 올해 여성발전기금 지원사업으로 김제시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신청한 ‘여성의 사회적 향상

을 위한 사회예절교육’ 등 총 5개 사업을 심의 확정했다.

특히 이번 선정된 사업은 기존의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을 위한 사업들과 달리 순수 여성들의 복지증진과 발전에 초점을 맞췄다.

/전북취재본부=홍윤선기자 hnews@